

【P2 - 10】

여성에서 고혈압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 분석

조은영^{1,2*}, 장연수¹, 김경배⁴, 유하정⁴, 배수진⁴, 최동훈^{1,3}, 이종호⁴, 장양수^{1,3} ¹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혈관계질환유전체연구센터, ²연세대학교 BK21 의과학사업단, ³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심장내과, 심혈관연구소, ⁴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고혈압은 협심증과 심근경색증등의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요인이 되며 나이증가에 따른 혈압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짜게 먹는 습관의 교정과 비만의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혈압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심혈관계질환 유전체연구에 참가한 40-65세의 여성 중 24시간 소변수집이 가능한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인군 35명, 고혈압군 15명이 본인의 동의하에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비만도 및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였으며 인슐린저항성을 평가하였다. 혈압조절과 관련된 혈청 전해질 및 24시간 소변중 전해질 농도를 분석하였다.

정상군과 고혈압군에서 평균 연령, 비만도 및 체지방율의 차이는 없었다. 고혈압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수축기혈압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115.8 ± 2.59 , 133.8 ± 19.4 , $p < 0.05$) 허리둘레가 넓었고 허리엉덩이둘레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0.85 ± 0.06 , 0.90 ± 0.06 , $p < 0.05$). 공복 인슐린 농도와 인슐린저항성 지표가 고혈압군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두 군의 혈청 및 24시간 소변내 나트륨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혈청 칼륨농도는 고혈압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있었으며 소변내 칼륨배설량이 많았다.

소변내 나트륨배설량을 이용하여 Intersat study에서 제시된 공식을 이용하여 식이 소금섭취량을 추정해 보고 한국인의 평균 소금섭취량을 참고로 15g 이상 섭취하는 고식염섭취군을 분류하였다. 일일 소금섭취량은 정상군이 11.5g, 고혈압군 13g으로 고혈압군이 다소 높았고, 소금섭취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역시 고혈압군의 47%가 평소 짜게 먹는다고 답한 반면 정상군은 38%로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고혈압발생과 관련된 위험인자들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결과 허리엉덩이둘레로 평가된 복부비만의 여부, 인슐린저항성지수 및 고식염군에 대한 고혈압 발생위험도는 각각 $OR=3.56$, 1.14 , 1.96 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을 제공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12g 이하로 소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하거나 가족중에 고혈압환자가 있는 경우 10g이하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관상동맥경화증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권장된다. 또한 운동을 통한 복부비만의 감소와 과일과 야채섭취를 통한 충분한 칼륨의 섭취가 고혈압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요구된다.